

袈裟에 관한 研究

— 律에 나타난 袈裟와 우리나라 袈裟의 비교 · 연구를 中心으로 —

光州大學校 衣裳學科
專任講師 安 明 淑

目 次	
I. 序 論	1. 袈裟의 構造와 種類
II. 律에 나타난 袈裟	2. 袈裟의 色
1. 袈裟의 構造와 種類	3. 袈裟의 衣材
2. 袈裟의 色	4. 袈裟의 着衣法
3. 袈裟의 衣材	IV. 結 論
4. 袈裟의 着衣法	參考文獻
III. 우리나라 袈裟	

I. 序 論

袈裟는 원래 佛敎發生地인 印度의 衣服으로서 열대성 기후인 南方佛敎國의 僧侶들에게는 日常生活에서 부터 宗教的儀式까지 使用되는 衣服이었으나, 그밖의 나라에서는 그 기후와 民族性 그리고 佛敎의 흡수과정에 따라 表現樣式이 다르게 나타나 自國의 服飾 위에 袈裟를 덧입어 宗教 儀式에 使用하는 儀式的 法服이 되고 있다. 宗教에 있어서 儀式이란 意味는 敬虔하고 恭敬스런 마음의 外的인 表現이다. 그러므로 信仰의 근원적인 면에서 宗教란 人間의 깊은 마음에 관한 것으로 구태어 僧侶의 복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없으나, 승려들은 언제나 일반사람과는 다른 服裝을 하여 상대방에게 修道者에 대한 敬虔한 마음을 갖게 하고 宗教的 儀式을 行使하는 사람이므로 그 宗教와 傳統에 근원이 되어 慣習的으로 認識할 수 있는 것이라야 效果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外形的인 衣服이 精神的인 修行을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外部的인 表現이 一般人的인 信仰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성한 宗敎를 표현하는 宗教衣服의 올바른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

다. 세존이 여러번 律로 制定한 것 또한 이러한 意味에서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袈裟의 여러가지 要素 즉 袈裟의 構造와 種類, 色, 衣材, 着衣法 등을 원류적인 측면에서 律藏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袈裟가 석존 當時 律로 制定된 것과 비교해 어떠한 變化와 差異가 있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律에 나타난 袈裟

1. 袈裟의 構造와 種類

袈裟의 構造는 律藏에 의하면 佛陀가 比丘僧團의 法服을 田文相의 조각옷으로 지어 입도록 한 것은 外道와 구별되게 하고 도적에게 害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南方의 整然한 田畝의 모양을 본따서 阿難에게 그 짓는 法을 考案하여 내게 함으로 부터 라고 한다. 그 모양은 길고 짧은 方形의 조각들(橫堤 · 豎條)을 三長一短, 二長一短 내지 一長一短으로 이어서 長條를 이루고, 이 長條를 五條로 부터 二十五條 까지 사이의 홀수에 해당하는 數만큼 모아서 長方形 布를 이루는 것인데 각 條를 잇는 方法은 中央 條가 양쪽에 이어지는 條의 左右를 덮어 박아

지면 그 다음부터는左는左側으로 덮어 나가고 右는右側으로 덮어 나가는 것이다.¹⁾ 또한 佛이 말하기를「五條로 하고 六條로 하지 않고 七條로 하고 八條로 하지 않고, 九條로하고 十條로 하지 않고, 내자 十九條로 하고 二十條로 하지 않으며 만약 이런條數를 넘으면 備蓄해서는 안된다」²⁾고 한 것을 보아 袈裟의條數는 총 奇數로 하고 偶數로 하지 않으며 너무 큰條數로 만드는 袈裟를 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袈裟의種類에는 三衣가 있으며, 대승의 가르침을 修行하는 者들은 다만 이 三衣를 몸에 걸치며, 그 外의 衣를 비축하지 않고 三衣 만으로 充分하다.³⁾

三衣란 五條袈裟인 安陀會, 七條袈裟인 鬱多羅僧, 九條~二十五條袈裟인 僧伽梨이며, 安陀會는 잠잘 때 입는 옷이며 袈裟中 제일 아래 입는 옷이며, 절안에서 여러가지 일할 때와 다닐 적에 입는 옷⁴⁾이다. 그러므로 安陀會는 日常의 作業과 就寢에 착용⁵⁾하는 것이다.

鬱多羅僧은 衆會, 손님 접대時, 聞法, 說法, 食事, 坐禪 등 大衆과 함께 修行할 때 착용⁶⁾하는 것으로 日常의 行使에 착용⁷⁾한다. 僧伽梨는 쪽을 습한 袈裟, 여러쪽 袈裟라 하여 王宮에 갈 때, 乞食할 때 입으며,⁸⁾ 田相의條數가 매우 많으므로「雜碎衣」,

「衆集衣」라 하기도 한다.⁹⁾

2. 袈裟의 色

袈裟에는 세종류의 基本的인 要素가 있으며, 그 中 色賤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外面에서 가장 判別하기 쉽기 때문이고 體賤과 刀賤은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判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⁰⁾

袈裟色을 一名 壞色이라고 했으며, 이처럼 壞色을 制定한 것은 질투, 사치 등의 상태를 생기지 않게 하고 同時에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해 佛弟子의 表示로 한 것이 主要한 目的¹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比丘의 옷을 袈裟色으로 染色하는 理由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在家의 白衣와 구별하여 出家의 옷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袈裟色의 옷을 입은 사람은 佛教의 比丘뿐이므로, 袈裟를 입고 나쁜 일이나 나쁜 마음을 삼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袈裟色으로 물들이면 在家人의 옷이 못되므로 價値가 없어져 도난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¹²⁾ 셋째, 所有의 집착을 덜기 위한 것으로 僧侶의 몸에 입는 衣의 色은 그것에 의해 貧慾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色으로 더러워진 濁한 色이어야¹³⁾ 했기 때문이다. 넷째, 施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¹⁴⁾이다.

諸律에서는 대체로 袈裟色을 三種으로 나누고

1)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1, p.137.

「亦教諸比丘作. 或一長一短 或兩長一短 或三長一短. 左條葉左靡. 右條葉右靡. 中條葉兩向靡.」

2)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8, p.855.

「幾條衣. 佛言. 應五條不應六條. 應七條不應八條. 應九條不應十條. 乃至 十九條不應二十條. 若過足條數不應畜」

3) 中村宗一, 正法眼藏 권4, 誠信書房, 1982, p.56.

4) 釋日陀毘, 沙彌律儀(要略), 通度寺 金剛戒壇, 佛紀 2992, p.197.

5) 佐藤密雄, 律藏, 大藏出版 주식회사, 1980. p.123.

6) 澤木興道 감수·久馬慧忠篇, 袈裟의 研究, 大法輪閣版, 1967. p.199.

7) 佐藤密雄, 前掲書, p.123.

8) 釋日陀毘, 前掲書, p.198.

9) 大正 新修大藏經 권40, No 1804, 1969. p.105.

「大衣名衆集時衣. 義翻多種. 大衣云雜碎衣. 以條數多故. 若從用名入王宮聚落衣」

10)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982. pp.15~16.

11) 澤木興道 鑑修, 久馬慧忠篇, 前掲書, p.44.

12) 이 희익, 불교의 교단생활, 불광출판부, 1984. p.39.

13) 工藤成樹, 佛教と衣生活 ②-色-, 衣生活研究 Vol 9 No2, 1982. p.50.

14) 李 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寶蓮閣, 1973. p.552.

있다. 즉四分律¹⁵⁾에서는靑黑木蘭,十誦律¹⁶⁾에서는靑泥茜,有部律¹⁷⁾에서는靑泥赤,巴梨律¹⁸⁾에서는靑泥暗褐色等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三種色을表示한 것이지袈裟色을三種으로만限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染料種類로袈裟色을염색하는方法에는크게보면두가지로볼수있다. 하나는十誦律에「靑泥茜의三種壞色으로染色하되靑衣를얻으면二種類로淨하니泥나茜이요.泥衣를얻으면역시二種類로淨하니靑이나茜이요.茜衣를얻으면역시二種類로淨하니靑이나泥요.黃衣나赤衣나白衣를얻으면三種類로淨하니靑泥唐이니라」¹⁹⁾고하는것으로三種壞色을사용하되바탕색이아닌다른두가지색으로염색하는염색방법과다른하나는唐賢首의法藏菩薩戒本疏²⁰⁾에「袈裟는소위不正色이니소위靑黃赤白黑의五色으로서로相互染色하여不正色을이루니소위壞色이다」라고하는염색방법이있다.

袈裟色으로禁止된色은석존당시比丘들에게純色의靑黃赤白黑色의옷착용을금하였고²¹⁾, 또한薩婆多毘尼婆沙 권8²²⁾에「色에는五大色이있으니黃赤靑黑白이다. 이五大色을만일하나씩각각染色하면突吉羅²³⁾이며또한그것으로옷을짓더라도受하지못하며또한입지못한다. 만일五大色衣를얻어뒤에다시如法色으로改染하면受持할수있으나만약먼저如法色으로만들고뒤에五大色으로과괴하는者는受持할수없다」라고하였다. 즉이는世上의옷을얻은後라도일단如法色으로染色하면입을수있다는뜻이다. 그러므로袈裟色으로는五大色과單純色을피하여色을과괴한色으로일반사람들이좋아하지않는어둡고

탁한色으로하여道에전념할수있게하였다.

3. 袈裟의 衣材

最初의比丘들의衣材는糞掃衣(pamsukula)만이었으며또糞掃衣를사용하는것은佛敎比丘를포함한當時出家者社會의常法(Sila)이었다고²⁴⁾한다.

諸佛의佛法으로서世上의不用品으로서버려진衣服과그파편의조각즉糞掃를가장淸淨한衣材로한것이다.糞掃의衣料를모으는中에는絹으로된布도있고綿布와같은絹도있을것이다. 이것을사용할때絹또는綿布라이름하지않고모두糞掃라고한다.²⁵⁾ 그러므로袈裟의衣材는材質그자체가중요한것이아니라佛弟子로서어떠한態度로받아들이느냐에달려있다.

이상을토대로각律藏에나타난許容된衣材를보면다음〈表1〉과같다.

그러나처음에는糞掃衣만을원칙으로하였으나糞掃衣만가지고는확대되어나가는佛敎僧團의衣服問題를해결할수없어그에따라서信徒들이布施하는衣服도받아입도록請願하였다. 부득이信徒들의布施를받아들이도록허락하기는하였지만少慾知足하는根本的인理念을벗어날수는없었으므로이로부터法衣의옷감에制限을加하기에이르렀다. 그러므로一般的인衣材가아닌특수한장식품이나사치품을금지하였던것이다. 禁止된衣材를살펴보면〈表2〉와같다.

4. 袈裟의 着衣法

袈裟의着衣法이지금까지잘알려지지않은것은

15)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8, p.676.

16) _____, No 1435, p.109.

17) 西本龍山譯, 國譯一切經, 律部 21, 대동출판사, 1938. p.117.

18) 南傳大藏經 권3, 대장출판 주식회사, 1938.

19)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35, p.109.

20) 釋 日陀撰, 前揭書, p.203.

21) 西本龍山譯, 國譯一切經, 律部 14, p.134.

22) 大正 新修大藏經 권23, No 1440, p.556.

23) 突吉羅: 惡作·惡語라 번역하며 극히 가벼운 죄로서 그 종류가 많으므로 百衆學이라고도 한다.

24) 이 순덕, 法衣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1982, p.33.

25) 中村宗一, 正法眼藏 권2, 誠信書房, 1982, pp.130~131.

〈表 1〉許容衣材

	律 藏	許容 衣材 種類
1	摩訶僧祇律 ²⁶⁾	劫具衣, 欽婆羅衣, 芻摩衣, 僑奢耶衣, 舍那衣, 麻衣 (六種)
2	四分律 ²⁷⁾	拘舍衣, 劫具衣, 欽婆羅衣, 芻麻衣, 叉麻衣, 舍逸衣, 麻衣, 翅夷羅衣, 拘攝羅衣, 嘶羅鉢尼衣 (十種)
3	善見律毘婆娑 ²⁸⁾	古具衣, 欽婆羅衣, 驅磨衣, 娑耶衣, 句餘耶衣, 娑興伽衣 (六種)
4	佛阿毘曇經 ²⁹⁾	芻磨衣, 僑奢耶衣, 奢那衣, 傍伽衣, 駱駝毛衣, 馬毛冗古具衣, 糝寐底衣, 阿力多柯衣, 波兜羅衣, 提娑田底衣, 高磨利衣, 紙底衣, 迦梨迦衣, 阿叛那衣, (十四種)
5	五分律	(比丘用) 劫具衣, 欽婆羅衣, 野蠶綿衣, 紵衣, 麻衣 (五種) ³⁰⁾ (比丘尼用) 劫具衣, 欽婆羅衣, 俱舍那衣, 芻磨衣, 婆彌(那)衣, 婆舍那衣, 瞿阿呵那衣, 瞿茶伽衣, 麻衣 (九種) ³¹⁾
6	十誦律	(比丘用) 青衣, 黃衣, 赤衣, 白衣, 麻衣, 野麻衣, 芻麻衣, 僑奢耶衣, 翅夷羅衣, 欽婆羅衣, 劫具衣 (十一種) ³²⁾ (比丘尼用) 麻衣, 赤麻衣, 白麻衣, 芻麻衣, 翅夷羅衣, 欽婆羅衣, 劫具衣 (七種) ³³⁾
7	巴利律 ³⁴⁾	芻麻衣, 古具衣, 僑奢耶衣, 欽婆羅衣, 沙尼, 麻布 (六種)

〈表 2〉禁止衣材

	律 藏	禁止 衣材 種類
1	摩訶僧祇律	牂羊毛, 欽婆羅衣, 髮欽婆羅衣, 草衣, 馬尾欽婆羅衣, 樹皮衣, 韋衣 (七種)
2	四分律 ³⁵⁾	草衣, 娑婆草衣, 樹皮衣, 樹葉衣, 珠瓔珞衣, 皮依, 鷲毛衣, 人髮欽婆羅衣, 馬毛犛牛尾欽婆羅衣, (九種)
3	五分律 ³⁶⁾	人髮衣, 鹿皮衣, 羊皮衣, 鳥毛衣, 馬鬣衣, 牛尾衣, 草樹皮葉衣 (七種)
4	十誦律 ³⁷⁾	髮欽婆羅衣, 角鴉翅衣, 鹿毳衣, 皮衣, 打木衣, 阿拘草衣, 跋拘草衣, 拘餘草衣, 文若草衣, 娑婆草衣, 藁草衣 (十一種)
5	巴利律 ³⁸⁾	拘餘草衣, 跋拘草衣, 板衣, 人髮欽婆羅衣, 馬尾欽婆羅衣, 角鴉翅衣, 鹿皮衣, 阿拘草衣, 樹皮衣 (九種)

26)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5, p.295.

27) _____, 권22, No 1428, p.849

28) _____, 권24, No 1462, p.771

29) _____, 권24, No 1482, p.970

30) _____, 권22, No 1421, p.23

31) _____, 권22, No 1421, p.189

32) _____, 권23, No 1435, p.33

33) _____, 권23, No 1435, p.42

34) 南傳大藏經 권3, 대장출판 주식회사, 1938, p.492.

35)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8, p.858.

36) _____, 권22, No 1421, p.138

37) _____, 권23, No 1435, pp.197~198.

38) 南傳大藏經 권3, pp.531~532.

佛敎가 氣候, 風土, 習慣이 다른 中國과 日本으로 傳해지면서 同時에 袈裟에 있어서도 본래의 目的인 實用的인 衣服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어 그것이 단지 僧侶의 裝束의 하나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袈裟는 몸에 맞추어 만든 서양적인 옷에 비교해 단순한 長方形의 衣服을 능숙하게 몸에 맞도록 입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袈裟의 着衣法에는 偏袒右肩着衣法과 通肩着衣法이 있다. 偏袒右肩으로 袈裟를 착용한다는 것은 右肩을 덮지 않고 右腋下로 돌려서 左肩上으로 넘겨 입는 着衣法으로 열대성 기후 지역인 中印度에서 주로 着用하였다. 舍利佛問經에 의하면 修供養時(見佛時, 問訊師僧時, 應隨事相時) 즉 부처님을 뵈거나 師長에게 問法하는 恭謹한 禮裝이거나 作業의 편의를 위한 作業服일 경우는 偏袒右肩으로 着用한다³⁹⁾고 되어 있다. 또한 道元禪師도 「偏袒右肩이 常途의 法」이다 라고 하였고, 偏袒右肩은 通常 걸치는 방식이고 右肩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도움이 되도록 움직이기 쉬운 모양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바른 자세⁴⁰⁾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大小乘 經典들은 佛弟子들이 問法하는 장면에서 한결같이 「偏袒右肩」한다고 하여 원래 세존 당시 中印度에서는 偏袒右肩하는 것이 正裝이었던 듯 敍述⁴¹⁾하고 있다.

通肩着衣法은 여러 聖聞人들이 見聞해 相傳한 方法은 아니고, 阿含敎의 여러 經典에도 빠져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⁴²⁾, 通肩으로 袈裟를 착용하는 것은 一枚布形의 長方布로 한끝을 背後로부터 左肩上으로 넘겨 고정시킨 後 다른 한끝을 右肩과 胸部를 덮어 다시 左肩上으로 넘겨 입는 것으로 한냉한 간다라 지방의 착의법이다. 佛敎가 한냉한 西北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그 이후 풍토에 순응하여 通肩着衣法을 許諾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며,

이런 흔적은 律藏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五分律 제21 衣法下⁴³⁾에서 受經問訊時만 偏袒右肩하고 夜起時는 通肩으로 한다 하였고 舍利佛問經에 의하면 作福田時(國王請食時, 入里乞食時, 坐禪誦經時, 巡行樹下時) 즉 威儀 갖추어야 할 경우 通肩을 착용⁴⁴⁾한다고 하였다.

또한 外出時 옷을 通肩으로 입는데 이는 比丘의 250戒 가운데 比丘는 女性의 살에 닿아서는 안되므로, 이를 범하지 않으려면 女性은 手足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比丘 측에서 신체를 옷으로 싸는 수 밖에 없었던 것⁴⁵⁾같다.

III. 우리나라 袈裟

佛敎成立 當初로 비롯하여 中國이나 우리나라 傳來 以後 歷史的 背景과 地理的 조건이 다름에 따라 그 受容이나 시행과정에서 파생된 差異와 變化가 있는 것이다.

1. 袈裟의 構造와 種類

우리나라 袈裟의 現存遺物이나 肖像畫를 보면 대부분 條數가 表示되어 있는데, 이는 佛敎가 印度 南部에서 東南아시아 方面으로 傳해진 것과 印度의 西北部를 거쳐 西域諸國에서 中國으로 傳해진 것 두가지가 있는데, 이 中 西域諸國을 經由해 본 袈裟에 특히 條數를 強하게 表現하는 양식이 생겨⁴⁶⁾ 印度僧(圖 1)의 袈裟에는 條數가 확실하지 않으나, 中國僧(圖 2)의 袈裟에는 條數가 확실히 묘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中國을 통해 받아들였으므로 袈裟에 條數가 表現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이러한 條數(割切衣)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小慈知足의 원리를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일부러 割裁衣를 만들고 있다. 즉 새천을 일부러 5조, 7조, 9조, 25

39) 澤木興道 監수, 久馬慧忠 編, 前掲書, pp.190~191.

40) 澤木興道 監수, 久馬慧忠 編, 前掲書, p.198.

41) 藏阿含經 권3, 後奏 弘始 15年, p.413.

42) 中村宗一, 正法眼藏 권2, p.124.

43)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No 1421, p.142.

44) 최 완수, 二重着衣法考, 考古美術 154 · 155, 1982, p.46.

45) 이 희익, 前掲書, p.43.



〈圖 1〉高昌 베제릿고 寺院의 壁畫 (5C~10C頃)
印度僧



〈圖 2〉高昌 베제릿고 寺院遺跡의 壁畫 (5C~10C頃)
中國僧

조에 맞추어 잘라 다시 이으므로 완전한 새천에 의한 割裁衣의 制作은 佛陀의 少慾知足하는 기본적인 衣服觀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傳統을 고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部分的으로 時代에 따라 變化도 필요하므로 융통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나라 袈裟의 종류로는 5조, 7조, 9조~25조로 律에 나타난 종류가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석존 당시 律로 制定된 것과는 內容面에서 다르다. 즉 석존 당시는 기후와 용도에 따라 袈裟의 착용이 구별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僧規 68條에 보면 大禪師, 大教師는 가장 上品인 九條~二十五條 착용하고, 禪師 大德은 九條, 中德은 七條, 大禪은 五條, 沙彌는 縵衣를 착용⁴⁷⁾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職位에 따라 袈裟의 착용이 달랐으나 現在는 직위나 법계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착용한다.

또한 印度에서는 기후에 따라 袈裟의 종류를 달리 해 착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長衫을 입고 그 위에 袈裟를 입으므로 印度와 같이 기후에 따라 袈裟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儀式의 重要性에 따라 袈裟의 착용이 정해졌다. 曹溪宗의 경우, 儀式 때 보통은 七條衣, 아주 큰 法會 때는 九條衣를 착용한다. 그러므로 曹溪宗은 五條, 七條, 九條 袈裟를 착용하고 二十五條 袈裟는 거의 着用하지 않는다고 하나 실제로 소지해 착용하고 있는 스님도 많이 계시다. 그러나 太古宗에서는 五條, 七條는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五條 袈裟는 日本의 絡子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하여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下品 袈裟가 九條이고, 九條 부터 二十五條까지의 袈裟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曹溪宗의 袈裟를 만드신 慈雲스님⁴⁸⁾은 우리나라의 경우 長衫을 입고는 큰 袈裟를 걸치지 못하므로 僧侶라는 表示의 役割을 하기 위해 五條 袈裟를 만들어 착용한 것이라 한다.

2. 袈裟의 色

우리나라 袈裟色으로는 新羅時代는 僧侶 전반에 관한 것은 잘 모르나 高僧들의 경우 黃色, 紅色, 紅錄貼相이 주로 사용되었고, 高麗時代는 紅色, 紫色, 紅錄貼相이 주로 사용되었고, 朝鮮時代에는 紅色, 紫色 등에 金点, 銀点이 된 色을 사용하였으

46) 井筒雅風, 袈裟史, 雄山閣出版, 1982, p.28.

47) 우정상, 김영태 共著, 한국불교사, 진수당, 1969, p.184.

48) 자운스님말씀, 부산 감로사 스님으로 조계종 가사를 처음 만드신 스님.

며, 最近代에는 正紅色, 正紫色이 사용된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紅色 袈裟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유물이나 문헌⁴⁹⁾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中國에서 天子色이므로 黃色을 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黃色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主色을 이루는 것은 역시 紅色으로 中國의 영향이 물론 컸으나 우리의 民俗信仰과도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紅色에 관한 우리나라 民俗思想을 보면 醬油를 담그고 고추나 목탄을 띄우는 것은 형태적인 것보다 色彩的 呪術禁忌 信仰에서 유래한 것이며,⁵⁰⁾ 고추나 목탄의 色彩性이 出産時와 醬油에 까지 전용된 것은 저항력이 박약한 嬰兒의 生命을 귀신의 손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 한다. 또한 結婚날 新婦의 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 冬至에 팔죽을 먹는 것, 부적을 꼭 붉은 글씨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⁵¹⁾

또한 悲華經⁵²⁾에는 “귀신이 있다 해도 袈裟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외형상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색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袈裟의 색이 赤色인 것은 色彩的 呪術 禁忌 信仰이 가미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佛敎에서의 紅色은 高貴한 의미이나, 民俗信仰에서의 紅色은 呪術 禁忌 信仰이므로 같은 紅色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므로 袈裟色에서의 紅色은 완전한 민속신앙과의 부합을 뜻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귀신을 멀리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紅色의 의미를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紅色 袈裟가 전통적인 袈裟色의 主를 이루는 것으로 壞色 中 木蘭色 系統인데 색이 一定하지가 않고 약간씩 다르다. 그 이유는 어디서 袈裟 佛事하느냐에 따라 같은 종파라도 색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색을 어느 분량 만큼 넣으라는 一定한 規定이 없어 佛事時 마다 어느 색이 조금 더 들어가느냐

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一定한 색을 내려면 宗단에서 統制를 하여 一定하게 한 곳에서 袈裟의 색을 만들지 않으면 不可能하나 佛敎에서는 佛敎의 敎理가 나타내듯이 획일적인 것을 배척하고 자율적인 것을 지향하므로 이러한 自由로운 色相이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측⁵³⁾과 이와는 반대로 가사를 제대로 傳授하는 것이야말로 佛敎를 제대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袈裟功德을 주장하는 측⁵⁴⁾도 있다.

3. 袈裟의 衣材

律에 나타난 袈裟의 여러가지 要素 中 衣材에 대한 言及이 가장 적다. 이는 袈裟의 다른 要素-構造, 種類, 色, 着衣法-보다는 덜 規格化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만큼 衣材는 材質 그 자체 보다는 佛弟子로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나 하는 態度가 중요하다. 즉 絹이니 綿이니 합성섬유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態度로 받아들일지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衣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화롭고 아름다운 衣材가 아니라 修道의 增益이 되게 하기 위한 衣材로 淸淨한 것이 중요하다.

또한 袈裟의 衣材는 주워서 모아 만든 糞掃衣나 信徒들의 布施에 의해 袈裟를 만들므로 一般人들이 흔히 사용하는 絹, 綿, 麻, 毛 등 一般的인 직물들이었다. 그러나 糞掃衣가 가장 가치있는 衣材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것을 재료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袈裟의 衣材는 上古時代 부터 高麗, 朝鮮에 이르기 까지 주로 비단 종류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비단종류가 많이 사용된 時代相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律藏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袈裟의 衣材가 다양하지 않고 비단 종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曹溪宗에서는 慈雲스

49) 安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1990, pp.64~65.

50) 임동권, 韓國民俗學論考, 集文堂, 1982, p.94.

51) 홍은규, 염직물에 나타난 한국인의 색채 감정 및 색채 조화에 관한 고찰- 이조후기 의상을 中心으로 - 홍익대, 1982, p.24.

52) 李智冠, 比丘尼戒律研究, 大覺會出版部, 1977, pp.154~155.

53) 인환스님 말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律師 스님.

54) 中村宗一, 正法眼藏, 권4, 袈裟功德 참조.

님이 太古宗에서 비단가사를 사용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신에 어긋나고 律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해 비단을 사용하지 않고 보기에 좋고 實用的인 합성섬유를 사용하며, 太古宗에서는 겨울에는 양단과 공단, 여름에는 갑사와 숙고사 등을 사용한다.

4. 袈裟의 着衣法

우리나라 袈裟의 着衣法은 三國時代부터 現在까지의 佛畫, 肖像畫, 彫刻 등을 보면 通肩과 偏袒右肩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僧侶들의 경우는 偏袒右肩을 착용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偏袒右肩이 활동하기 편하고 부처님이나 高僧에 대한 공경스런 表現을 하기 위한 것과 기후적인 여건에 따라 長衫 위에 袈裟를 걸쳐야 하므로 자연적으로 袈裟가 日常服 보다 裝飾的인 역할이 크므로 偏袒右肩으로 걸치게 된 것이라 보인다.

律에는 偏袒右肩과 通肩의 着衣法이 있으며 그것의 착용구분이 뚜렷하나 現在는 나라마다 적합한 착의법을 하고 있다. 예를들면 동남아쪽 스님들도 보통 낮에는 偏袒右肩을 입는 것이 상례이나 밤이나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기후의 변동으로 通肩을 착용하기도 한다.

現在 우리나라 袈裟의 착의법은 時代가 바뀌어도 거의 變化없이 계속된 것으로 通肩 着裝은 거의 없이 儀式時에만 입는 袈裟로 偏袒右肩으로 統一되어 사용되고 있다.

I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律에 規定된 것은 細部的으로 袈裟의 여러가지 要素에 대해 言及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이 간략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理由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袈裟가 制定되었던 印度와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印度에서는 袈裟가 日常服으로 平常時에 착용되므로 많은 變化가 있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儀式服이자 法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精神的인 의미만 강조하고 있어 많은 變化가 없었던 것이 두번째 이유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를 토대로 僧侶들의 袈裟 着用時 유의할 점에 대해 몇가지 提言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在의 佛敎는 過去와 같이 귀족불교나 상류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大衆佛敎化 時代이므로 信仰의 속성상 스님들은 大衆의 신앙적인 지주이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佛道를 닦는데 禪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外的인 모습을 통해 일반사람에게 전달되는 의미도 중요하므로 布敎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袈裟를 형식적인 物로만 볼 것이 아니라 袈裟의 功德을 통해 부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大衆을 접하게 될 때 袈裟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사가 승려의 의식복으로 정착된 이상 부처님의 원뜻을 전달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初期에는 禪과 더불어 형식적인 面도 강조하여 袈裟를 중요시했으나 最近에는 형식적인 面보다 禪을 중시하는 佛敎의 특징 때문에 袈裟를 소홀히 여겨 간략화되었다. 그러므로 律藏에서 제시된 것 처럼 모든 경우에 袈裟를 착용하지 못하고 의식시에만 착용하더라도 가사 본래의 뜻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袈裟의 種類, 色, 衣材, 着衣法 등에 대해 통일된 원칙이 없이 宗派마다 다르고, 또한 스님들 각자에 따라 달라 부처님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 무질서 하게 袈裟가 만들어져 입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法服인 袈裟를 정신적인 상징물로 보고 정신적인 뜻을 강조하려면 가사의 통일된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袈裟의 衣材로서 律藏에 나타난 糞掃衣의 意味는 袈裟의 사치나 화려함을 막기 위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주운 천 조각들을 모아 만들거나 施主者들의 布施에 의해 만들라는 원뜻이 있어서 糞掃衣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糞掃衣를 만드는 자체가 더 형식화, 사치화될 수 있으므로 糞掃衣의 정신적인 의미만 계승하면 된다. 즉 검소한 옷감으로 修道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衣材 자체가 아니므로 다만 실용적이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衣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參 考 文 獻

- 釋 日陀, 沙彌律儀(要略), 通度寺金剛戒壇, 佛紀 2 992.
- 愼 蘭淑, 우리나라 袈裟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79.
- 安 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1990.
- 李 順德, 法衣에 관한 研究, 영남대 대학원, 1982.
- 李 智冠,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寶蓮閣, 1973.
- _____, 比丘尼戒律研究, 大覺會出版部, 1976.
- 이 희익, 佛教의 教團生活, 불광출판부, 1984.
- 임 동권, 韓國民俗學論考, 集文堂, 1983.
- 우 정 상, 김영태 共著, 한국불교사, 진수당, 1969.
- 崔 完秀, 二重着衣法考, 고고미술 154·155, 1982.
- 홍 은규, 염직물에 나타난 한국인의 색채 감정 및 색채 조화에 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1982.
- 工藤成樹, 佛教 と 衣生活 ②-色-, 衣生活研究 Vol 9 No2, 1982.
- 西本龍山譯, 國譯一切經, 律部 14, 大東出版社藏版, 1920.
- 澤木興道 鑑修, 久馬慧忠篇, 袈裟의 研究, 大法輪閣版, 1967.
- 井筒雅風, 法衣史, 雄山閣出版, 1982.
- _____, 袈裟史, 雄山閣出版, 1982.
- 中村宗一, 全譯 正法眠藏 권2·권4, 誠信書房, 1982.
- 佐藤密雄, 律藏, 大藏出版 주식회사, 1980.
- 南傳大藏經 권3, 律藏 3, 大藏出版 주식회사, 1928.
- 大正 新修大藏經 권22, 律部 一, 大正一切經刊, 大正 14.
- _____, 권23, 律部 二, 大正一切經刊, 大正 14.
- _____, 권24, 律部 三, 大正一切經刊, 大正 14.
- 藏阿合經 권3, 後奏 弘始 15.